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 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.17(금) 오후 3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7. 2. 17. (금)	담당부서	동북아통상과
담당과장	조수정 과장(044-203-5690)	담 당 자	박근형 사무관(044-203-5692)

중국 수출기업 애로사항 점검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키로
- 제7차 한중 통상점검 T/F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는 2. **17.(금) 14:00, 우태희 2차관 주재**로 **제7차 한중 통상점검 특별팀(T/F)회의**를 가졌다.

* **한중 통상점검 특별팀(T/F)회의는** 대 중국 **통상현안 및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점검**하기 위해 설치된 **관계부처·전문가·민간 합동 점검회의**

* 한중 통상점검 특별팀(T/F)회의: 1차(12.2), 2차(12.15), 3차(1.4), 4차(1.17), 5차(2.1), 6차(2.10)

○ 이번 회의는 **우리기업의 대(對) 중국 비즈니스 동향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찾았다.**

< 제7차 한중 통상점검 T/F 개요 >

○ **일시·장소** : '17. 2. 17.(금), 14:00~15:00, 서울
○ **참석부처** : 산업통상자원부, 외교부, 기획재정부 등
○ **참석기업 :** 철강, 석유화학, 전기전자 등 분야 협회 및 업계
○ **주요내용** : 중국 통상현안 및 우리기업 애로사항 점검

□ 정부와 업계는 최근 중국의 **비관세장벽, 수입규제, 통관애로 등**에 따른 **우리 업계 피해 가능성을 점검**하고,

○ **양자·다자 채널을 통한 중국과의 협의 동향** 및 **업계와의 공조를 통한 향후 대응방안**을 논의했다.

□ **우태희 차관**은 "전 세계적인 **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국 산업 우선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**이 있어,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, **우리 업계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**하겠다."라고 말하고

○ "중국 측에 **이의 제기가 필요한 부분은 의연하게 지속적으로 제기**할 것이나, 분야별로 **중국과의 산업 협력 활성화**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."라고 강조했다.

* 한중 산업장관회의, 한중 철강 분야 민관협의회, 한중 디스플레이산업 민관협의회 등

□ **정부는** 앞으로도 **중국의 통상정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**하면서, **「한중 통상점검 특별팀(T/F) 회의」**등을 통해 업계와 **지속 소통**하고, **민관 공동으로 대(對) 중국 통상현안에 대응**하기로 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박근형 사무관(☎044-203-569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